

LG화학, 1/4분기 영업이익 호조

하나증권, 145.8% 증가 3122억원 ... 석유화학 · 정보전자소재 급증

하나대투증권은 4월8일 LG화학에 대해 1/4분기 영업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데 반해 주가의 낙폭은 지나쳐 비중 확대의 적기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1만1000원으로 높였다.

이정현 애널리스트는 “LG화학의 주가는 2007년 11월 이후 석유화학 경기 하강에 따른 수익성 급감 및 2007년 4/4분기 영업실적 우려감 등으로 부진했지만, 2008년 이후 국제유가 및 나프타(Naphtha) 가격 급등에도 1/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45.8% 급증한 3122억원의 호조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”고 분석했다.

또 “1/4분기에 LG석유화학 BPA(Bisphenol-A) 사업의 양호한 수익성과 PVC(Polyvinyl Chloride), 합성고무 판가 상승 등으로 석유화학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9.0% 급증한 2027억원, 전방산업인 패널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판가 인하 압력 둔화 등으로 정보전자소재 사업 역시 948% 급증한 765억원의 영업 이익 시현이 가능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

그리고 “중동지역 신증설 증가로 인한 수급 악화 영향을 직접 받는 NCC/PO(Propylene Oxide) 사업부문 매출이 전사 매출의 19%에 불과해 석유화학 경기 하강에 따른 수익성 급감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가는 과도한 낙폭 수준이다”라고 평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4/08>